

황선홍, '방임' 클린스만과 달랐다

A대표팀 임시 감독 겸임... 선수 간 갈등 원인 해소 노력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 출전 선수 명단 발표

임시로 A대표팀 감독을 겸임하는 황선홍 23세(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간 갈등을 방관한 반면 황 감독은 직접 선수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갈등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황 감독은 11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 2연전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황 감독은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아시아인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은 물론 주장 손흥민과도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팀 내 베테랑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대 대표팀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의 이 같은 태도는 전임 클

린스만 감독과는 판이하다. 지난해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의 A매치 후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대표팀 내 갈등이 있음을 감지하고서도 유령에 있는 선수들만 만나러 다닌 뒤 문제를 덮었다.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과 손흥민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뒤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베테랑 선수들이 이강인을 요르단전에서 빼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묵살했고 조직력이 깨진 대표팀은 요르단에 참패를 당했다. 나아가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하극상이 요르단전 패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 아시안컵 우승 실패에 책임이 있는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코치 역시 자국 오스트리아 언론 기고문에



황선홍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3월 A대표팀 및 올림픽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서 한국 선수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반면 황 감독은 대표팀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체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대표팀을 위해 직접 총대를 멘 것이다. 이번 태국과의 2연전은 국가대표팀 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 감독은 "조금 짧은 기간이라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생각"이

라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대표팀 내 사안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강인 사태 역시 영국 언론을 통해 처음 폭로됐다. 대표팀 내 사안이 외국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황 감독은 "말이라는 것은 스태프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난제를 스스로 떠안은 황 감독이 대표팀 분위기 수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14년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어려울 때는 피해 가고 쉬을 때는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좋았어!"... LG 오지환, 투런 홈런

11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범경기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4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LG 오지환이 투런 홈런을 때린 뒤 더그아웃에 들어서며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야구 2024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22일 개최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진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0개 구단의 감독과 각 팀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참석한다. LG 트윈스 오지환·임찬규, KT 위즈 박경수·고영표, SSG 랜더스 최정·서진용, NC 다이노스 손아섭·김주원, 두산 베어스 양석환·곽빈, KIA 타이거즈 이의리·윤영철, 롯데 자이언츠 전준우·김원중,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원태인, 한화 이글스 채은성·문동주, 키움 히어로즈 김해성·송성문이 입담 대결을 펼친다. 올해에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되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과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한다. 입장권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후 2시 시작하는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출사표와 올 시즌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 어볼 수 있다. /뉴시스

호원대 씨름부, 전국 씨름대회서 동메달

진용찬, 대학부 개인전서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38회 전국시도대학 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씨름부는 8~9일 2일간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장사급(-140kg) 진용찬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용찬 선수(스포츠무도학과 2년)는 16강 인제대 박준서, 8강 한림대 김민중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전에서 이 체급 최강자 영남대 홍지훈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다. 운영진 감독은 "진용찬 선수가 대학 입학 후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학부 개인전 첫 입상했다"며 "2024년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



다. 훈련을 잘 이겨내고,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지도 담았다'

전주시민축구단
올 시즌 유니폼 공개
"K3리그 승격 최선"
16일 FC충주와 홈 경기



전주시민축구단 홈 유니폼(사진 왼쪽)과 원정 유니폼.

전주시민축구단이 2024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시즌 홈 유니폼은 '상의를 노랑, 하의를 검정'이다. 또 원정 유니폼은 상의와 하의 모두 흰색이다. 이와 함께 골키퍼(GK) 홈 유니폼은 빨강, 원정에는 파랑, 셔츠는 초록을 사용해 강렬한 이미지를 줬다. 또한 유니폼 전면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라는 이미지를 넣었고, 하의 오른쪽에 전주시로고를 새겨 전주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상의 소매 부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이미지를 패치로 넣었다. 2017년부터 전주시민축구단을 후원하고 있는 고은미래(진료과목 피부과)는 상의 뒤편 상단에 로고와 상호를 새겼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2024시

즌 유니폼은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 K3리그로의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전주공업고등학교운동장에서 FC충주와 홈 개막경기를 갖는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미래를 세게로! **생동하는 부안**

부안, 위대한 자연유산을 품다!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국내 5번째 세계지질공원 · 국내 최초 해안형 지질공원

채석강

올금바위

진리 거대 황와습곡

진리 주상절리

선계폭포

모항 페퍼라이트

솔섬

적벽강

지질명소 19개소

지소폭포 / 모항 생선배 광택(생각하는 바위) / 유전리 청자 도요지 / 굴바위 / 계획도 제스퍼 / 계획도 역할 / 위도 진리 공룡알 화석지 / 소리 유변성 응회암 / 치도리 해변 / 용머리 층간 습곡 / 대-소형제도